

〈제 524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역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광주한마음 장학재단에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광주한마음장학재단을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과 보호관찰

처분 비행청소년, 생계곤란 모범 청소년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배성범 광주지검장, 박치영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이사가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에도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천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12월에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오비맥주

◆ 광주시에 빛고을 장학금 1500만원 기탁



오비맥주(대표 고동우)는 지난 22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오비맥주 광주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은 광주시청과 함께

2003년부터 17년째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시청 산하 재단법인 빛고을 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광주지역 인재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2018년도 금요조찬포럼 우수 참석자 시상〉



광주경총(회장 최상준)은 지난 1월 25일 2018년도 금요조찬포럼 51회 중 45회 이상 참석한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 등 15명에게 금요조찬포럼 우수 참석자 시상식을 가졌다.

금요조찬포럼 우수참석자 시상식은 금요조찬포럼의 활성화와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상으로 3년째 최상준 회장님이 직접 시상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서 시상하고 있다.

사무국 일지(1.21 ~ 1.25)

| | | | |
|--------------|---|--------------|--|
| 1. 21 (월) | ● 박병규 일자리특보 면담 | 1. 24 (목) | ● 경총 연찬회 |
| 1. 22 (화) | ●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회의 ● 민간위탁고용서비스 인증서 수여식 | 1. 25 (금) | ● 제1427회 금요조찬포럼 ● '19년 노사민정 사업' 설명회 |
| 1. 23 (수) | ● 18년 감사회 | | |

〈제1427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월25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노성호 한림대 교수를 초청 <리더가 꼭 알아야 할 역사문화이야기>란 주제로 제142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야기의 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하다. 그 예로 맨손으로 독을 막은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는 전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 미국 동화작가가 쓴 픽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에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독에 구멍난 곳을 소년이 손으로 막고 어른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가면 꼭 소년이 죽었던 독을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도시가 네덜란드 스파르담(암스테르담 서쪽 바닷가의 할렘)도시였다. 11세기경 잉글랜드 코벤트리 지역의 백성을 사랑했던 영주부인 고다이버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그 이후 고다이버는 초콜렛의 상품으로 발전했고, 고다이버 초콜렛은 이전 초콜렛들보다 맛도 별로 없었지만 경쟁상품을 제치고 브랜드로 떠올라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유럽 아프리카와 달리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 문화 없어 저급하다고 했다’. 그러다 우리나라 한탄강변의 연천군 전곡리에서 1978.4월에 미2사단 그레그 보웬 하사가 발견한 주먹도끼로 세계 고고학史를 바꿔버렸다.

그 이후 연천군에는 구석기축제를 개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강원도 상원사의 목조좌상에서 유래된 스토리로 오대산이 있는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다.

리더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말한다. 역사적 유래가 깊은 우리 광주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1. 경제 동향

■ 경총, '2019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8)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39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19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 연휴는 4.7일, 상여금*은 111만 3천원으로 조사됨.

* 전체근로자 설 상여금 평균치가 아닌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지급액 단순 평균치

- 올해 설 연휴는 평균 4.7일로 지난해 4.0일에 비해 0.7일 증가
- 응답기업의 64.7%는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 설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설 체감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보다 3.7%p 감소한 67.8%로 나타남.
- 다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11만 3천원으로 지난해(108만 1천원)보다 3만 2천원(3.0%) 증가

■ 한국은행,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22)

- 2018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7% 성장

※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13~'16년 확정치, '17년 잠정치, '18년 속보치)
: 2.9%('13)→3.3%('14)→2.8%('15)→2.9%('16)→3.1%('17)→2.7%('18)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건설 및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된 반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

※ [민간소비] 2.6%(`17)→2.8%(`18) [정부소비] 3.4%(`17)→5.6%(`18)
[건설투자] 7.6%(`17)→▲4.0%(`18) [설비투자] 14.6%(`17)→▲1.7%(`18)
[수출] 1.9%(`17)→4.0%(`18)

- 경제활동별로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은 증가세 확대

- 한편, 2018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0% 성장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

■ 한국은행, ‘2019년 경제전망’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 (1.24)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9년과 2020년 모두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9년 지난 전망(2.7%, `18.10월) 대비 0.1%p 하향 조정

- 부문별로 민간소비가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민간소비)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2.8%)보다 낮은 2.6%로 전망

- (설비투자) 올해 하반기중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마이너스(▲1.7%)에서 증가(2.0%)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건설투자) 신규 수주·착공 부진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18년 ▲4.0% → '19년 ▲3.2%)
- 취업자 수는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경상수지는 2018년(750억달러)보다 감소한 690억달러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1.4%, 2020년 1.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한편, 같은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2.28)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기로 발표
- 금통위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 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1.21)

- IMF는 지난해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하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3.7%, '18.10월)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5%로 전망
- ※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에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 (선진국) 독일 등 유로존의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로 하향 조정, 미국 성장 전망은 유지, 일본은 재정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 (신흥개도국) 유가 하락·무역갈등 등 글로벌 요인과 개별국의 특수성 등으로 국가별 상이(아시아를 제외한 유럽·중남미 등 하향 조정)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IMF는 향후 예상되는 하방리스크로 ▲무역긴장 상존, ▲노딜 브렉시트 및 예상 이상의 중국경기 둔화시 금융시장 심리 악화, ▲기타 요인* 등을 꼽음.

* 신 정부 출범, 미 연방정부 섰다운 지속, 지정학적 위험(중동 및 동아시아 지역) 등

■ 한국은행, ‘2018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1.22)

- 2018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2018년 전년 대비 2.0% 상승)
 - 농림수산물 : 농산물 등이 올라 전월대비 3.1% 상승
 - 공산품 :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1% 하락
 - 전력, 가스 및 수도 : 전월대비 0.1% 하락
 -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등이 내렸으나 음식점 및 숙박 등이 올라 전월대비 보합
- 2018년 1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5% 하락 (2018년 전년 대비 3.1% 상승)
- 2018년 1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하락 (2018년 전년 대비 1.6% 상승)

끝.

2. 판례동향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채용을 요구하며 원청을 상대로 집회 및 선전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정될 수 없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9. 선고 2018카합50305 판결).

1. 사실관계

○ 한국 ○월드(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17. 8.경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이 사건회사가 출자하는 자회사의 정·직으로 채용(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 협력업체 중 하나인 서울 ○○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함.

※ 서울 ○○ 소속 근로자들을 이 사건 회사 사옥에 위치한 전시·체험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8. 4.경부터 ▲ 이 사건 회사 사옥(전시·체험관) 인근 노상, 사옥 입구 등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 사옥 앞 광장에서 집회 개최하고, ▲ 출근시간 직전, 점심기간에 이 사건 회사 사옥 내 로비, 중앙 계단에서 음향장치 등을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음악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선전행위를 하고, ▲ 방문객들을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고, ▲ 사옥 부지 내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였음.

○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아니며,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감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옥 내의 집회·시위·소음발생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회사 사옥에 위치한 전시·체험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해도 정당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점유권과 시설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지 여부 : 소극 〉

-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함(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 75754 판결 참조).
-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 영업시간 중 계속하여 집회·선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체험관 강사활동 등 자신들의 업무 자체는 계속 수행하고, ▲ 관람객들의 통행이나 관람 자체를 저지하거나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 허위사실에 관한 주장이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 집회·선전 행위의 소음, 벽보의 내용, 숫자,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소명이 부족하므로 기각함.

3. 시사점

-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사용자라거나 업무수행상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인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방식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이 사건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끝.